Hansun Brief

발행일:2018년 3월 27일(통권53호) / 발행인:박재완 / 발행처:한반도선진화재단 / 서울 중구 퇴계로 197, 407호 / 전화:02-2275-8391 / email:hansun@hansun.org / www.hansun.org

# 미투 운동의 본질과 과제

**이 용 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목 차

1. 미투 운동의 동인: 자발성과 공동체적 연대
2. 미투 운동의 촉진 요인과 제약 요인
3. 개인의 인권 보호와 사회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문자 한 통 #7079-4545**

## 요 약

미투 운동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축적되었던 것이 계기를 만나면서 발화된 것이다. 홀로서는 용기를 내지 못하다가 같은 아픔을 지니고 있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밖으로 드러내자 나도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것이 운동으로 확산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미투 운동은 자발성과 공동체적 연대를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미투 운동은 운동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개인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사회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사회의 지향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공동체자유주의'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미투 운동의 근본 원인은 개인에 대한 존중과 각자 분수를 지키면서 상호 배려하는 '공동체자유주의정신'의 부재에 있다. 지향가치가 바르게 정립되면 신뢰사회가 형성되고 믿음의 사회가 된다. 이런 사회가 되면 오늘날의 많은 사건들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면서 줄어들게 될 것이다.

## 1. 미투 운동의 동인: 자발성과 공동체적 연대

한 여검사의 고백이 미투 운동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사회 각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그 확산의 동인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받은 아픔을 마음 깊숙이 숨겨오다가 용기 있는 사람들이 나서자 이제는 나도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共感)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이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을 것이다. 또한 동병상련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위로를 받고 공동체적 연대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도 이들이 용기를 내기까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을 것이다. 잊어버렸던 아픔의 상처와 충격이 다시 살아날까 하는 두려움, 과거의 일이 밝혀짐으로 해서 가족은 물론 이웃과 친지 등 사회로부터 받을 눈총 때문에 오랜 시간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이다. 그래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고민 끝에 용기를 내서 참여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미투 운동이 단순한 성폭력의 문제를 넘어서 약자에 대한 권력남용이고 위계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파생한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

미투 운동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네가 하니 나도 함께 힘을 보태겠다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 운동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과 이들의 아픔을 공감한 사람들이 함께 나선 것이다. 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은 것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공동체적 연대감이다. 서로 알지 못하지만 같은 아픔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이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같은 아픔을 공유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공동체적 연대감을 유발한 것이다. 자발성과 공동체적 연대성이 미투 운동의 동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 2. 미투 운동의 촉진 요인과 제약 요인

미투 운동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런 운동이 시작되기 까지는 환경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이 축적되면서 어느 날 시민운동으로 표출된 것이다. 개괄적이나마 그 요인을 아래와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첫째, 여성의 지위향상이다.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선진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고 여성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분야에 따라서 남성보다 여성이 앞 설 수 있는 분야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소프트웨어 산업분야가 바로 그것이다. 여성이 압도적이거나 앞서가는 현상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초등학교에서는 여성 교사가 남성 교사보다 많아졌다.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사법시험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우수한 성적을 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금녀의 장소였던 사관학교에서도 여성 생도의 성적이 남학생보다 못지않거나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

둘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이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게 된 동인의 하나는 개개인의 인격과 인권은 물론 행복추구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 기인한다. 소재대상으로서의 '성'의 문제를 넘어서 약자에 대한 권력의 남용, 위계사회에서의 개인에 대한 폭압적 권력 행사가 인권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 문제는 아직 사각지대가 많이 있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언제나 권력의 남용과 위압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투 운동 역시 단순히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의 문제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접근해나가야 한다.

셋째, 세계화 역시 미투 운동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은 자생적으로 발생한 면도 있지만 미국에서 일어났던 미투 캠페인에 영향

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미투 캠페인이 유럽으로 확산되고 논쟁을 유발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넷째, 정보화와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활성화도 미투 운동을 확산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했다. 정보화가 세계를 동시간대로 연결시켜주면서 세계의 활동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 또한 전달수단으로서의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활성화는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숨기고 싶었던 속 깊은 일까지 자기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밝혀지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마음 속 깊이 감춰두었었던 여성 인권의 문제는 시간의 문제이지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미투 운동을 제약하는 요인도 있다. 우선 양성평등의식의 결여이다. 오늘날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한국인의 양성평등 의식이 크게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도 의식 기저에는 남성우위 의식이 깔려있다. 성별임금격차[1]는 여전하고 고위직 승진에도 유리천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기관의 조사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29개국 가운데 29위로 꼴찌이다[2]. 그동안 정부는 양성평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 그 성과는 더디다. 보다 적극적으로 의식과 제도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과 사회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양성평등이 빠르게 진전되지 못하는 바탕에는 뿌리 깊게 잔존하고 있는 가부장적 의식구조와 남성우위 문화가 있다. 이것이 미투 운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성차별을 외부에 좀처럼 드러내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남성 우위 문화와 함께 가부장적 문화에 기인한 면이 적지 않다. 이런 문화 때문에 여성들은 당하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삼켜야 했다. 오늘날 피해자들이 내면에 깊이 숨겨왔던 아픔을 어렵게 밖으로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고 위로하기보다 오히려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도 이 같은 가부장적 의식구조와 남성우위문화에 기인한다.

위계사회 문화도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조직 내 상하관계에서 나타나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위계사회 문화에 영향 받은 바 크다. 직장에서 갑을 관계에 있거나 사회활동에서의 갑을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하고도 이를 드러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삼키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권력이나 금력이 있을수록 이런 행위가 쉽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 금력과 권력뿐만 아니다. 정의를 내세우면서 약자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자기들이 저지른 행위는 불가피하고 어느 면에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처럼 오늘날 사회에서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은 단순한 성의 문제가 아니라 상위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약자에 대한 권력남용이고 이는 위계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파생한 것이다. 돈이든 지위든 능력이든 간에, 자신이 소유한 권력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행사하여 약자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어떤 변명을 해도 용서받기 힘들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가해자의 마음으로부터의 진정성 있는 사죄이다.

자기들이 한 일은 로맨스이고 남이 한 일은 불륜이라고 말하는 소위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많은 사회, 이런 사람들이 죄책감 없이 사는 사회라면 우리 사회는 이미 병든 사회이다. 가해자인 개인 역시 마

1) 2018년 여성가족부 업무 보고에 따르면 남성 임금이 2,918,000원인데 비하여 여성은 1,869,000원에 불과하다(2016.6).

2) 양성평등에 대한 국제지수를 보면 조사기관별로 결과가 다르다. 이는 조사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결과 유엔개발계획(UNDP)이 전 세계 188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5 성불평등지수(GII · Gender Inequality Index)'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 10위로 좋은 성적이다. 반면 2016년 10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6 성격차지수(GGI · Gender Gap Index)'에서 한국은 144국 중 116위를 차지했다. 출처: chosun.com. 차트위 대한민국. 2017.10.31

찬가지이다. 법의 문제 이전에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나서도 반성조차 않는 사람이라면 양심조차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활개치고 다니면서 각 분야에서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치유하기 힘든 고질병이 깊어진 사회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시대가 바뀐 것을 인식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바뀌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견고할 것처럼 보였던 유리천장도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런 현상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변화되고 있음을 상징한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가부장적 의식구조를 이미 구시대의 낡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은 남성 우위의 사고가 잔존하고 있다. 전통과 인습은 쉽게 바뀌어 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는 바뀌고 문화도 변화하고 있다. 전환기 과정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립될 때까지는 많은 논쟁이 유발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구질서와 새로운 질서 간의 마찰이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미투 운동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구시대의 질서에서 새로운 시대의 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충돌현상 일 수 있다.

## 3. 개인의 인권 보호와 사회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우리는 이번 미투 운동이 사회를 변화 ·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라고 볼 수 없다.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가족과 친지 그리고 이웃과 사회가 이들을 감싸고 보호해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가해자들은 법적 심판에 앞서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해야 한다. 그래야 이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들은 이들을 용서하거나 아니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 피해자의 몫이다.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미투 운동이 자칫 새로운 성차별이나 역차별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성의 문제로만 다루었을 경우에는 잘못된 정보나 왜곡된 정보가 남성에게 불이익을 유발하는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 최근 직장에서 남성들이 여성들을 모임에서 제외하고 거리를 두는 '펜스 룰(Pence rule)' 현상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이 자칫 남녀간 실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울타리(fence)로 변하면 여성은 조직에서 정보로부터 소외되고 승진 등에서 차별을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미투 운동이 이런 것을 방지하자는 것인데 오히려 피해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방식이라면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것이다. 미투 운동이 왜곡되어 성대결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미투 운동은 성의 문제를 넘어서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투 운동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문제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제2의 미투 운동이 발생하지 않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미투 운동이 발생하게 된 문제의 본질을 살펴보고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 방법은 진화적 단절이어야 한다. 현재 나타난 병리적 현상을 제대로 진단하고 인간 존엄성 실현이라는 미래 소망의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약화된 도덕과 윤리체계를 복원 발전시키면서 신뢰사회 형성을 유발함으로서  사회적 자산이 축적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려면 먼저 우리사회의 지향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오늘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 문제의 본질을 파고 들면 근본 원인은 개인에 대한 존중과 각자 분수를 지키면서 상호 배려하는 '공동체자유주의 정신'의 부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동체자유주의는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이다. 여기서 자유라 함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하는 책임이 따르는 자유이다. 공동체는 가족, 사회, 국가, 역사, 자연을 포괄하는 것으로

각자 자기 가치와 목적이 있다. 가족은 행복을 추구하고 사회는 각자 분수를 지키면서 상호배려를 요구한다. 자유가 창의를 유발하는 발전 동력의 원리라면 공동체주의는 개인행복의 원리이고 포용과 협동의 사회통합 원리이다. 지향가치가 바르게 정립되면 신뢰사회가 형성되고 믿음의 사회가 된다. 이런 사회가 되면 오늘날의 많은 사건들이 사회 스스로 자정작용을 함으로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런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교육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교육의 목표는 인격적 완성을 지향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일과 공동체에 기여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홍익인간 교육'이다. 홍익인간 교육은 도덕교육과 인성교육 그리고 공동체 완성을 위한 지식교육과 직업교육이 양대 축을 이룬다[3]."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인성교육의 장인 가정교육이 사라진지 오래이다. 학교교육도 입시교육으로 변하면서 인성교육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토라와 탈무드 교육을 통하여 나를 내려놓고 타인을 존중하며 사랑을 키워가는 교육을 한다. 질문과 토론학습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자율, 성취, 자아존중 교육을 실천한다고 한다. 우리도 가정교육을 복원함으로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동시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지식교육과 직업교육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

제도적 정비도 중요하다. 미투 운동의 근저에는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도 작용했다. 피해자에게 자기가 당한 내용을 입증하라는 입증책임 문제이다. 피해자가 증거를 찾아서 법에 호소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사법책임의 미비도 피해자 보호와 구제차원에서 보완해야 한다. 가해자에 대해서도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는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가해자가 입증되는 경우에도 그의 가족과 친지에게까지 비난이나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디까지 개인의 일탈에 의한 것이지 가족 전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투 운동이 한국 사회를 권력과 위계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각 개개인을 인격체로 대우하고 배려와 행복을 추구하는 '공동체자유주의정신'이 펼쳐지는 사회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 문자후원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

3) 박세일. 공동체자유주의가 답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 2015. 63~65p.